

실적 날개 단 쿠팡, 2분기 연속 흑자내고 연매출 '신기록'

지난해 연매출 26조5917억 기록
영업적자 지난해 보다 92% 줄어
와우 멤버십 유료 회원 1100만명

쿠팡이 역대 최대 연매출 26조원을 올린 데다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만년 적자' 기업으로 흑자 전환 가능성을 의심받았지만 수익 강화를 선언하고 1년 만에 성과를 내고 있다.

1일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4분기 실적 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연 매출은 26조5917억원(205억8261만 달러, 환율율 1291.95원 기준)으로 전년도 21조646억원보다 26%는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 적자 규모는 1447억원(1억1201만 달러)으로 지난해 1조7907억원 대비 92% 줄었다. 당기순손실 또한 1189억원으로 지난해 1조7653억원 대비 93% 감소했다.

지난해 쿠팡은 4분기 매출은 전년(6조655억원)보다 21%는 7조2404억원(53억2677만 달러·분기 환율 1359.26원 기준)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133억원(8340만 달러)로 3분기 1037억원에 이



쿠팡은 지난해 26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고 1일 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쿠팡은 주요 물류센터 건립이 완료 돼 본격 운영에 들어가며 3차 물류 서비스까지 시작할 예정이다. /뉴시스

어 연속으로 영업흑자를 냈다. 당기 순이익 또한 1387억원(1억206만 달러)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쿠팡의 활성고객 1811만 5000명, 1인당 고객 매출은 294달러(40만원)로 전년 대비 4% 증가했다. 와우 멤버십 유료 회원 수는 전년 대비 200만명 늘어나 1000만명을 돌파(1100만명)했다.

쿠팡이츠, 쿠팡페이, 쿠팡플레이, 해외 사업 등 쿠팡의 지난해 신사업 매출

도 6억2802만달러(8302억4000만원)로 전년 대비 25% 늘어났다.

이번 실적에 대해 김범석 쿠팡 의장은 "이번 실적은 쿠팡이 수년에 걸쳐 지속해온 투자와 혁신의 결과"라며 "아직 국내 유통 시장은 오프라인 중심이며 가격도 높고 상품도 제한적이다. 고객에게 더 다양하고 낮은 가격, 특별한 서비스로 더 좋은 대안을 만들 것이며, 고객이 '와우(wow·감동)'할 수 있는 새로운 순간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거라브 아난드 쿠팡 CFO는 "장기적인 조정 예비타 가이던스를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한다"며 "대분기 향상 의미 있는 성장을 기록하거나 동일한 성장률을 계속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향후에도 계속해서 마진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정 예비타는 영업활동으로 번 실제 사업의 순수 현금흐름을 보는 지표로, 해당 수치가 흑자일 경우 연간 기준 흑자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해 쿠팡의 조정 예비타는 4925억원(3억8121만 달러)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쿠팡의 흑자 전환은 앞서 투자한 물류시설들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투자 지출이 크게 줄어들고 대신 CAPA는 늘어난 데서 기인한다.

2022년 기준 운영 중인 쿠팡의 물류센터는 전국 30개 지역 100여 개이며, 올해 중 대구FC를 포함해 몇 곳이 추가될 예정이다. 현재는 전국민의 70% 가량이 쿠팡의 배송센터 근방 10km 내에 거주하고 있어 쿠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다. 기존 오프라인 점포 없이 직접 물류센터를 건립하며 배송권역을 확장한 만큼 그동안 쿠팡은 막대한 투자비용을 지출했고 이 점이 흑자 전환에 걸림돌이 됐다.

투자 지출 규모의 축소 외에 신사업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어 수익성은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 쿠팡은 지난해 12월 쿠팡친구(배송원)를 모두 택배 사업자 자격을 취득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로 이동하는 등 배송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3차 물류(3P) 사업을 위한 초석으로 해석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3차 배송은 직매입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셀러들에게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익일 배송 자체가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3차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셀러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쿠팡의 수익성이 크게 좋아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CJ제일제당, 바이오 사업 키운다... 호주 기업에 투자

미세조류 대량생산 기술 간 시너지
바이오 소재 분야 포트폴리오 확대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소재 분야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ESG 경영 강화에 속도를 낸다.

CJ제일제당은 호주 바이오텍 기업 프로벡터스알지(Provectus Algae, 이하 프로벡터스)에 투자했다고 1일 밝혔다. 투자금액은 양사간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프로벡터스는 광합성 미세조류 기반의 바이오 소재 연구·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호주 스타트업이다. 2018년 설립됐으며, 미세조류를 대량으로 배양하는 기술과 이를 활용해 식용 색소, 약품용

펩타이드(체내에서 호르몬, 효소, 항체 등의 형태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미노산 중합체) 등 고부가 소재를 개발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식물성 플랑크톤으로도 불리는 미세조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광합성을 하는데, 이 때 만들어진 당을 세포 내에 지질, 전분 등의 형태로 저장한다. 이를 활용하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면서 연료 및 소재로 쓸 수 있는 유용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래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미세조류의 대표적인 예로는 건강기능식품에 주로 들어가는 '클로렐라' 등이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투자를 통해 프로벡터스의 미세조류 기반 바이오 소재

제조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 사업부문의 미생물 발효 기술 역량과 프로벡터스의 미세조류 대량생산 기술 간 시너지를 모색할 방침이다.

황윤일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부 대표는 "프로벡터스의 혁신적 광합성 기반 탄소중립 기술과 CJ제일제당 바이오 기술 경쟁력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소재 분야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ESG 경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2021년 바이오사업부 문 산하에 사내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조직인 테크브릿지팀을 신설, 바이

오 기반의 혁신 소재 및 친환경 기술에 적극 투자하며 시너지 발굴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2021년에는 기능성 펩타이드 소재를 개발하는 아일랜드 기업 뉴리타스(Nuritas)에 투자했으며, 지난해에는 미국 비건 치즈 개발사 뉴컬처(New Culture) 및 균사체 기반의 천연색소를 개발하는 미국 기업 마이크로마(Michroma) 등에 투자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벤처캐피탈 SOSV가 운영하는 펀드를 통해 미래 바이오 영역에도 투자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의 바이오사업은 순항중이다. CJ제일제당의 지난해(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조6647억원으로 전년보다 9.2% 증가했다. 매출액은 전년



서울 중구 CJ제일제당센터 전경 /CJ제일제당

비 14.4% 성장한 30조795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아미노산과 조미소재 등 그린 바이오가 주력인 바이오 사업 부문 매출은 4조8540억원(전년 대비 30.1% 증가)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원부재료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34.5% 증가한 636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식품 사업 영업이익(6238억원)보다 많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미중 갈등 커질까... 中 투자 '눈치싸움'

● **차이나 뉴스&리포트**

정찰풍선, 러시아 무기지원 등 잡음
외국기업들, 중국사업 확장 연기 계획

올해 미중(美中) 갈등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국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실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 패권을 두고 미중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정찰 풍선과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 코로나19 중국 기원설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는 여전히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커진 불확실성에 투자를 늦추거나 규모를 줄일 예정이다.

특히 일부 기업은 중국이 아닌 베트남,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로 투자 이전

을 결정했다.

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국 남부에 소재한 기업들의 90%는 미중 무역 분쟁이 올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64%는 미중 무역 갈등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대(對)중 고율 관세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기업은 60%에 달해 지난 2021년 55%, 2020년 53%보다 많아졌다.

이번 설문은 작년 12월 중국 남부 지역의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40%는 외국기업이며, 38%는 중국기업, 18%는 합작투자기업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본토와 미국 기업의 비중



미국 마이클 매크 하원 외교위원장 등이 지난달 28일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중국 관련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AP·뉴시스

이 각각 43%, 28%며, 유럽과 캐나다, 홍콩, 마카오, 동남아시아 기업도 포함됐다.

응답 기업들은 불확실성과 투자위험을 이유로 중국에서의 사업 확장을 늦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올해부터 향후 3~5년 동안 중

국 재투자를 위해 쌓아놓은 자금은 미화 18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나 줄었다.

특히 올해 재투자 예산이 2억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4%에 불과해 5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기업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74%는 1000만

달러 미만을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대상 기업들의 26%는 이미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의 투자 이전을 결정했다. 제조업의 경우 중국 대체로 가장 먼저 고려한 국가는 베트남이었으며, 미국과 싱가포르가 그 뒤를 이었다.

할리 세예딘 남중국미상공회의소 소장은 "지금 중국과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서로의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일할 최적의 시점"이라며 "우크라이나전쟁은 선진국과 신흥국,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세계 경제를 지정학적 진영으로 분열시킬 수 있는 만큼 미국은 소모적인 경쟁이 아니라 공통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낼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